



천국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357.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일부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고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고, 또 일부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들어간다고 하고, 일부는 부자는 그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주장이 전부 말씀을 근거로 한 신념이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말씀은 그 속뜻으로 보면 영적이고 글자의 뜻으로는 자연적이다. 따라서 말씀을 영적 뜻으로 보지 않고 오직 그 글자의 뜻만으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생긴다. 예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가 특히 그렇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쉽게 간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는 말씀에 아래의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마5:3, 눅6:20,21).

그러나 말씀의 영적 뜻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천국은 가난하건 부자이건 간에 신앙과 사랑의 생활을 한 모든 사람을 위한 곳임을 안다. 그렇다면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를 이제 설명하겠다. 천사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낸 결과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쉽게 천국에 간다는 것이며, 사람은 재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거나 가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천국에 가고, 부자들 중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을 누린다.

358. 먼저 얘기해 둘 것은, 사람은 술책이나 사기가 아니라면 기회가 닿는 대로 부를 얻고 쌓아도 되며, 너무 빠져들지 않는 한 고급 음식을 즐겨도 되고, 조건에 따라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조건이 같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오락을 즐기고 세상사를 얘기해도 된다는 사실이다. 또 경건한 사람처럼 슬프고 애통하는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즐겁고 활기에 넘칠 수 있다.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사람이 세상 사람과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살아도, 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며 이웃에게 신실하고 공정하게 대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의 애정과 생각이 어떠한가, 즉 그의 사랑과 신앙이 어떠한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든 외적 행동은 그 두 가지 것에서 생명을 얻는 까닭이다. 사람은 의지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사고로 말미암아 말하므로 행동은 곧 의지이고 말은 곧 생각이다. 따라서 말씀에 사람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하신 것은, 사람이 그의 행위의 근원인, 즉 행위 안에 들어 있는 생각과 애정에 따

라 심판받는다든 뜻이다. 행위는 생각과 애정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에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오직 그 외면의 근원인 내면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이유가 단지 법이 두렵고 평판을 잃을까봐, 그래서 명예와 이득을 잃을까봐 두려워서라면, 그 두려움에 의해 제지당하지 않는다면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을 속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행동이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지만 그의 생각과 애정은 부정한 것이다. 그가 내적으로는 정직하지 않고 속이려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지옥이 있다. 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남을 속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생각과 의지는 그의 양심이며 그 사람 안에는 천국이 있다. 이 두 사람의 행위는 외적 형태는 같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359. 사람이 신을 인정하고 이웃을 선의로 대하기만 한다면, 겉으로 세상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으며 형편과 역할에 따라 풍성한 식탁과 우아한 집과 좋은 옷을 갖추고 살 수도 있고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도 되며, 직무와 사업을 위해 그리고 정신 생활과 육신 생활을 위해 세상일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결론을 낳는다. 즉 천국에 가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다. 유일한 어려움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저항하고 그 두 사랑이 지배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 두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주의 말씀은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9,30).

주의 멍에는 쉽고 주의 짐은 가볍다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비롯되는 악에 저항하는 정도만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제거하시기 때문이다.

360. 나와 대화한 영들 중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속세를 버리고 거의 고립돼 살면서 세상사를 생각하지 않고 경건하게 명상만 한 사람이 몇 있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세에서 이 사람들은 매우 침울하다. 이들은 자기처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더 행복한 처지에 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다. 그들은 이웃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천국과의 연결매체인 이웃사랑의 의무를 회피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국을 원한다. 그러나 그들을 천사들 있는 곳에 데려가면 그들은 천사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쫓긴다. 그러면 그들은 황폐한 곳으로 가서 이 세상에서와 똑같이 산다.

(2) 사람은 이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면 천국에 합당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모든 애정은 가장 외적인 결과에 종착해야만 하며 그 종착점이 이 세상이다. 애정은 이웃과의 생활을 통해서 행위 안으로 흘러들어 스스로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없으면 애정은 질식해버리고 결국 사람은 더 이상 이웃이 안중에 없고 자기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이웃사랑의 생활 즉 모든 행동과 직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 실제 생활을 떠난 경건 생활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직무에 종사하는 정도만큼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이웃사랑의 삶이 자라날 수 있으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웃사랑의 생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대해 한 가지 보기를 들겠다. 이 세상에서 교역과 상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천국에 별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의와 공정성을 버린 대가로 얻은 이득과 영예로 인해, 또 그들에게 주어진 화려하고 명예로운 지위로 인해 그들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애정을 천국으로부터 떼어 자기 자신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고 매사에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정도만큼 그는 신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천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는 것이다.

361. 천국의 부자들은 남들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한다. 그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이 금은으로 된 듯 광채 나는 궁전에 산다.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조금도 거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그 쓰임새만 생각한다. 그들에게 쓰임새는 빛을 받은 듯 분명하게 보이지만 금은은 거기 비하면 그늘에 있는 듯 흐릿하게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세상에 살 때 쓰임새를 사랑했고 금은은 단지 수단과 도구로만 사랑했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광채를 내는 것은 쓰임새다. 쓰임새에 속한 선은 금처럼, 쓰임새에 속한 진리는 은처럼 광채가 난다. 따라서 천국에서 그들의 부와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서의 그들의 쓰임새와 일치한다. 선한 쓰임새란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면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선한 쓰임새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이 나태한 생활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나태한 생활은 사람의 생각을 그 타고난 악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해롭다. 쓰임새는 그 안에 신성을 담고 있는 만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과 천국을 바라보고 이 쓰임새에서 유익을 찾으며 재물은 오직 부수적 유익으로 여기는 정도만큼 선하다.

362. 그러나 신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서 천국과 교회에 속한 것을 내버린 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이와 반대다. 그들은 지옥에 있으며 더러움과 비참함과 궁핍함 속에 있다. 그들이 목적으로 사랑한 재물이 그런 것으로 변한다. 또 단지 재물 뿐 아니라 그 재물의 쓰임새 자체도 그렇게 변하는데, 그들의 재물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쾌락에 빠지며 부도덕한 일에 더 많이 더 자유롭게 몰두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업신 여기는 이웃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쓰였던 것이다.

그런 재물과 그 쓰임새에는 영적인 것은 전혀 없고 물질적인 것만 들어 있기 때문에 불결한 것으로 변한다. 부와 그 쓰임새 안에 있는 영적인 목적은 마치 몸 안에 있는 영혼과 같고 습한 땅이 받는 창공의 빛과 같다. 위와 같은 재물과 쓰임새는 영혼이 떠난 몸이나 창공의 빛을 받지 못한 습지처럼 썩는다.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천국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다.

363. 모든 사람의 주된 애정 또는 사랑은 사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뿌리 박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영은 그의 사랑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과 천사의 몸은 그들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며 그 천사나

영의 마음과 성격인 그들의 속 모습과 완벽하게 상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의 얼굴, 태도, 말을 보면 그들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얼굴과 태도와 말에 꾸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그의 영혼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사람의 주된 애정 또는 사랑이 그의 영원한 본질임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나는 허락하심에 의해 1700년 전 사람들 몇과 얘기를 해보았다. 그들의 일생이 당대의 책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가졌던 중심적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의 재물에 대한 사랑과 재물의 쓰임새에 대한 사랑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과 또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획득한 사랑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점은 그들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내세에 가면 그것이 쓰인 용도에 맞는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그 재물을 악하게 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한낱 오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 오물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악하게 사용한 재산이 주던 즐거움과 똑같은 즐거움을 느낀다. 이들이 오물에서 즐거움을 얻는 이유는 그들이 재물을 사용한 용도였던 불결한 쾌락들과 부도덕한 행동들이, 그리고 또한 쓰임새를 중시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인 탐욕이, 오물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영적 오물은 다른 것이 아니다.

364. 가난한 사람은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따라서 천국에 간다. 모든 사람의 생활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을 따른다. 어느 한 쪽을 선호하는 특별한 자비는 없다. 선하게 산 사람은 들어가고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가난도 재물과 전혀 다름없이 사람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

든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편에 불만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
 쓰며 재물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재물을 얻지 못하
 면 화를 내며 신의 섭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품는다. 또한 그들은 좋
 은 것을 가진 사람을 질투하고, 기회만 오면 누구든 속일 태세이며, 불결
 한 쾌락에 몰두한다. 그러나 이와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 자기 형편
 에 만족하고 성심껏 부지런히 일하며, 태만함보다 일을 사랑하고, 정직하
 고 신용 있게 행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때
 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었고 공정하고 바르게 자기 일을 행한 농
 부들이나 서민층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았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랑과 신앙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서는 신앙에 대해서, 저 세상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
 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었다. ‘이웃사랑은 모두 생활에 속
 한 것이고 신앙은 모두 교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웃사랑이란 모든 일
 에 있어서 공정하고 바른 것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이며, 신앙은 공정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신앙과 이웃사랑은 교리와 그에 따른 생활처럼,
 또는 생각과 의지처럼 서로 결부되어 있다. 사람이 그가 생각하는 공정하
 고 올바른 것을 의도하고 행할 때 신앙은 비로소 이웃사랑이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신앙과 이웃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그 사람들은 이것
 을 완전히 이해하고 매우 기뻐했다.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생활입
 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365. 이상의 내용으로 분명해진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국에
 가는 조건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유리하고 부자는 불리하
 다는 견해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것이
 다. 말씀에 나오는 ‘부자’의 영적인 의미는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따라서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그런 지식은 없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 따라서 교회 밖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지옥에 던져진 부자는 유대 민족을 의미한다. 그들을 부자라고 한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선과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색 옷'은 선에 대한 지식을, '고운 베옷'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한편 부자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고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간 거지(눅 16:19-31)는 선과 진리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었지만 그것을 갈망한 민족을 의미한다. 큰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부자는 유대 민족을, 그들 대신 데려온 거지는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눅 14:16-24).

(3) 그럼 다음의 주의 말씀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19:24).

여기서 부자는 자연적 의미와 영적 의미 둘 다로 쓰였다. 자연적 의미로는 재물이 많고 그들의 마음을 재물에 쏟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는 지식과 배움(이것이 영적인 재산이므로)이 많고 그것을 이용해 천국과 교회에 속한 것들을 자기 사고력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이것은 신적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가 더 쉽다”고 하신 것이다. '낙타'는 일반적으로 아는 기능과 아는 내용을 의미하고 '바늘구멍'은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 낙타와 바늘구멍이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사

사람들은 현재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말씀의 글자의 뜻이 영적으로는 어떤 뜻을 내포하는가를 알려주는 지식이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에는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영적 의미와 자연적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천국과 세상의, 그에 의한 천사와 사람의 직접적 결합이 끊어지자 양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 전체가 영적인 것에 대한 자연적인 것의 상응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말씀 안의 ‘부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 (4) 말씀의 여러 구절을 보면 ‘부자’는 영적 뜻으로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부’는 그 지식, 즉 영적 재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사10:12-14; 30:6,7; 45:3; 렘17:3; 48:7; 50:36,37; 51:13; 단5:2-1; 겔26:7,12; 27:1-끝; 속9:3,4; 시45:12; 호12:9; 계3:17,18; 눅14:33 등). 또 ‘가난한 사람은 영적 뜻으로 선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마11:5; 눅6:20,21; 14:21; 사14:30; 29:19; 41:17,18; 습3:12,13). 이 구절들은 모두 《천국의 비밀》 10227항에 그 영적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